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비교 연구

윤순덕 · 박은식 · 김은자 · 조영숙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노인의 성·연령·가구형태별 가족·경제·건강·영농·여가·주거 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농촌노인을 위한 지도사업 및 복지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영역을 가족, 경제, 건강, 영농 및 노동, 여가 및 교육, 주거, 노후, 정서, 복지욕구 등 총 9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설문지를 구성한 다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548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노인의 연령·성·가구유형별 생활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 교차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제, 건강, 영농 및 노동생활, 노후생활, 복지욕구 등 대부분의 생활실태 영역에서 노인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농촌노인이라 하더라도 연령, 성, 가구형태 등 농촌노인의 특성에 따라 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85-2 번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윤순덕 박사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ysd@rda.go.kr입니다.

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지도사업 및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Key Words: 농촌노인, 복지욕구, 생활실태]

서론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는 그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령화에 대한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적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60년 도시 2.5%와 농촌 4.2%이었으나, 2000년에는 도시(동 지역) 5.4%와 농촌(읍·면 지역) 14.7%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1960, 2000). 이러한 농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현상은 사회적으로 노인부양 부담 증가와 함께 농촌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들에게는 무엇보다 건강이나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된다. 그 두 가지 문제는 모두 노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농촌노인에게는 이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왜냐 하면, 농촌노인들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도시노인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다가, 또 그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등 연금소득이 있는 도시의 일반퇴직노인들의 상황과는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힘든 농사일 이외에도 자녀와 떨어져 노인 단독으로 살아가다 보니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 농촌노인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하는 요인은 각종 의료시설, 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이나 서비스의 혜택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른바 지역불균형문제의 심각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전국규모의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이나 복지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1998)을 중심으로 수행된 전국노인 대상의 조사들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체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들에서는 도시와 농촌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의 노인이 별도의 집단으로 분석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노인으로 통합시켜 분석했거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지역별 비교가 이루어졌다. 즉, 농촌노인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농촌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생활실태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국규모의 노인생활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농촌노인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조차도 1990년 초반까지는 일부 지역의 소규모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규모의 농촌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농림부, 2002; 농촌진흥청, 1993; 이정화·송미영, 2004; 한경혜, 19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2000), 대부분 아직 주기적인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를 1994년과 1998년에 이어 2004년에도 시도하는 등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최신자료의 보완뿐만 아니라 노인생활실태의 변화까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는 농촌노인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지속적인 자료생산은 제한되어 있다. 한 예로 농촌노인지도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농촌노인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일정간격으로 이루어져야 농촌노인지도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노인생활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노인생활영역을 분류하여, 농촌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 뿐만 아니라 농촌노인의 특성에 따라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농촌노인의 복지욕구 다양성 및 그들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지도사업과 정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노인생활실태의 영역과 영역별 조사항목 선정을 위하여, 노인생활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분류하고 있는 노인생활영역을 전국규모의 전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노인생활영역의 분류는 각각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전국노인 대상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생활실태영역 분류

연구기관 영역 ¹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4)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	한국여성 개발원 (1994)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1989)	김익기 등 (1999)
가족관계	O	O ³	O	O(가정생활)	O(가족)
사회적 관계		O ³	O		
직장생활				O	
경제생활	O(경제상황)	O(경제상황)	O(경제상황)	O	O
노후생활				O	
보건질병	O	O	O(건강)		O(건강)
주거상황	O	O ⁴			O(주거)
여가활동	O ²	O ⁴		O(참여취미)	O(여가)
복지서비스이용	O ²	O ⁵			
복지서비스욕구		O ⁵			
의식태도	O	O	O(의식)		
부양실태	O	O		O(원조부양)	
부양제공	O	O			
생활만족도	O			O(행복고독)	O

- 주. 1. 영역별 세부내용과는 무관하게 명명된 영역만으로 분류함
 2. 두 영역을 통합해 ‘복지프로그램 이용 및 여가활동참여’로 명명함
 3. 두 영역을 통합해 ‘가족 및 사회적 관계’로 명명함
 4. 각 영역에 대한 서비스이용 욕구를 포함해 명명함 (예, 여가활동실태 및 서비스이용욕구)
 5. 두 영역을 통합해 ‘복지서비스실태 및 서비스이용 욕구’로 명명함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표 2> 농촌노인 대상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생활실태영역 분류

연구기관 영역 ¹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996)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00)	농촌진흥청 (1993)	한경혜 (1996)	조완규 (1994)
가족관계	O	O	O	O ³	O(가족구성/ 자녀관계)
영농/경제활동	O	O	O(농업 및 부 업참여)	O(경제활동)	O(영농실태 /의향)
건강 및 의료		O	O(건강 및 관 리)	O(건강상태)	O(건강 및 질병)
주거상황		O			O ⁴
여가활동		O(여가 및 사 회활동)	O	O	O ⁴
노후생활	O	O ²	O(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O(사회적 지 원)	
교육활동/요구			O		
복지욕구	O				
생활만족도		O	O	O	O(심리상태)
정책요구	O	O			

- 주. 1. 영역별 세부내용과는 무관하게 명명된 영역만으로 분류함
 2. ‘노후생활 및 사회보험’으로 명명함
 3. 자녀동거노인의 자녀와의 관계, 단독가구노인의 단독가구형성실태를
 자세히 다룸
 4. 생활비 및 용돈, 여가생활, 거주주택유형 및 농촌거주의향을 묶어
 ‘일상생활’ 영역으로 명명함

분류결과를 살펴보면, 전국노인 대상과 농촌노인 대상으로 한 경
 우에 생활실태 영역의 분류나 명명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전
 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생활실태는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장생활, 경제생활, 노후생활, 보건·질병, 주거상황, 여가활동, 복지
 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욕구, 의식·태도, 부양실태, 부양제공, 생활
 만족도 등 14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반면, 농촌노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활실태가 가족관계, 영농 및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
 주거상황, 여가활동, 노후생활, 교육활동 및 요구, 복지욕구, 생활만족
 도, 정책요구 등 10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농촌노인보다도 전국노인
 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생활실태에 대한 영역이 더 세분화된 상태로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노인 생활영역에는 사회적 관계, 직장생활, 복지서비스 이용, 의식·태도, 부양실태, 및 부양제공 영역이, 그리고 농촌노인 생활영역에는 교육활동 및 요구, 정책요구 영역이 더 포함되어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분류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 생활의 영역을 가족생활(9항목), 경제생활(5항목), 건강생활(2항목), 영농 및 노동생활(4항목), 여가 및 교육생활(4항목), 주거생활(3항목), 노후생활(4항목), 정서생활(3항목), 복지욕구(3항목) 총 9개 영역 37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세부적인 항목은 연구결과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농촌(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남녀노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지역은 필자들이 속한 연구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농촌생활지표조사의 조사대상마을(전국 9개도 88개시·군 187개 행정리) 79시·군 총 92개 행정리이었다. 조사마을별로 6명을 조사하되, 그들 중에는 최소한 2~3명의 남성을 포함시켰으며, 자료수집은 조사요령을 사전에 교육받은 연구자들의 소속기관 모니터요원이 2001년 11월에 2주일동안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면접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자들 중에서 부적절한 응답을 했거나 여러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던 자를 제외한 548부만이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비교는 기술통계를 비롯하여 성별, 연령대별, 가구형태별 *t*검증, 교차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농촌노인의 거주지역은 읍지역 36.1%, 면지역 63.9%이었으며, 성별로 볼 때 남녀노인이 비슷한 비율로 표집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9.6%로 거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70대가 40.3% 그리고 80대 10.1%이었다. 학력은 ‘무학’이 47.1%, ‘초졸’은 39.2%, ‘중졸 이상’은 13.7%이었다. 직업은 ‘농업’부문 65.3%, ‘비농업’부문 9.0%이며, ‘무직’도 25.7%나 차지했다. 경제상태는 응답자의 약 ⅔가 ‘나쁘다’고 했으며, ‘좋다’ 22%와 ‘보통’ 13% 순이었으며,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45.0%, ‘보통’ 29.0%, 그리고 ‘나쁘다’ 26.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⅔가 배우자 없이 살고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62.4%이었다.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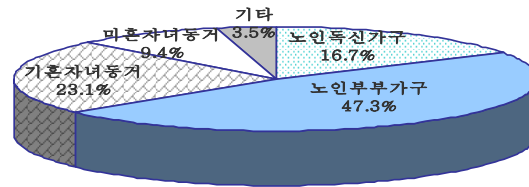
가족생활

가족생활 영역의 조사항목으로는 가구형태, 기혼자녀와의 동·별거이유, 부모-자녀 세대간 경제적·서비스·정서적 지원 교환이며, 이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그림 1>과 <표 4> 및 <표 5>와 같다. 농촌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 47.3%, 노인독신가구 16.7%로 노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48)

변 수	구 분	n(%)	변 수	구 분	n(%)
거주지역	읍	198(36.1)	성 별	여 자	272(49.6)
	면	350(63.9)		남 자	276(50.4)
연 령	60대	272(49.6)	학 령	무 학	258(47.1)
	70대	221(40.3)		초 졸	215(39.2)
	80대이상	55(10.1)		중졸이상	75(13.7)
직 업	농 업	355(65.3)	경제상태	나쁘다	354(65.0)
	비농업	50(9.0)		보 통	71(13.0)
	없 음	140(25.7)		좋 다	120(22.0)
건강상태	건강하다 보 통 나쁘다	245(45.0)	배우자	있 음	364(66.5)
		158(29.0)		없 음	183(33.5)
		142(26.1)	종 교	없 음	205(37.6)
				있 음	340(62.4)

주. 결측치로 인해 변수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그림 1> 농촌노인 가구형태 (N = 548)

인독신가구 16.7%로 노인단독가구비율이 전체노인가구의 약 ⅔(64%)를 차지하였으며, 기혼자녀동거가구는 23.1%, 미혼자녀동거가구는 9.4%밖에 되지 않았다.

<표 4>에 제시된 바처럼 기혼자녀와의 동거이유로는 ‘자식과 사는 것이 당연하므로’가 61.4%로 가장 많아 여전히 농촌지역에서는 규범적인 동거이유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으며, 자녀 쪽의 필요에 의한 동거이유도 17.4%로 나타났다. 별거이유로는 ‘직장 때문에 자녀가 떠나서’가 52.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는데 농촌지역 노인들의 자녀와의 별거가 자발적 선택이 아닌 자녀의 상황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기혼자녀와의 동·별거이유

동 거 이 유	n(%)	별 거 이 유	n(%)
자식과 사는 것이 당연하므로	78(61.4)	직장으로 자녀가 떠나서	190(52.5)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17(13.4)	따로 사는 것이 편하므로	94(25.9)
손자녀, 가사 돌보기 위해	10(7.9)	고향을 떠날 수 없어서	29(8.0)
몹시중을 들기 위해	9(7.1)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21(5.8)
노인끼리 살면 적적해서	7(5.5)	자녀가 원하지 않으므로	11(3.0)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3(2.4)	신체적으로 건강하므로	10(2.8)
기타	3(2.4)	슬하에 자녀(아들)가 없어서	7(1.9)
계	127(100)	계	362(100)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다음으로 경제적 도움, 서비스 도움, 정서적 도움 등에서 부모자녀세대간 지원 교환 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5> 참조). 정서적 지원 교환의 수준이 가장 높았던 반면, 경제적 지원교환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모든 도움 영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보다도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유의미하게 경제적 도움을 자녀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적 도움 수혜가 높고 제공은 낮은 반면, 정서적 도움 제공은 60대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혼자녀동거가구 노인이 경제적, 서비스, 정서적 도움 등 모든 영역에서 수혜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노인독인가구 노인은 서비스, 정서적 도움 수혜수준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에 비해 낮았다. 즉, 모든 지원영역에

<표 5> 농촌노인의 특성별 세대간 지원 수혜와 제공 [$M(SD)$]

구 분		경제적 도움		서비스 도움		정서적 도움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성 별	여	5.15(1.79)	3.81(1.87)	5.46(2.06)	4.58(2.02)	6.07(1.90)	6.02(1.86)
	남	4.88(1.75)	4.22(1.75)	5.43(1.88)	4.37(1.93)	6.00(1.85)	6.00(1.80)
<i>t</i>		2.85	5.64*	.03	1.12	.19	.03
연 령	60대	4.78(1.76)	4.25(1.70)	5.38(1.87)	4.53(1.95)	6.13(1.74)	6.19(1.61)
	70대	5.22(1.76)	3.80(1.90)	5.48(2.06)	4.54(2.03)	6.02(1.94)	5.92(1.99)
	80대 이상	5.28(1.76)	3.73(1.98)	5.58(2.10)	3.93(1.83)	5.65(2.20)	5.42(2.01)
<i>F</i>		4.01*	3.66*	< 1	1.88	1.40	3.61*
가 구 형 태	노인독신	4.87(1.91)	3.39(1.89)	4.77(2.08)	3.84(2.08)	5.50(2.13)	5.26(2.22)
	노인부부	4.84(1.72)	4.29(1.67)	5.22(1.78)	4.15(1.70)	5.91(1.76)	6.03(1.64)
	기혼자녀동거	5.72(1.58)	3.85(1.93)	6.70(1.73)	5.19(2.04)	6.65(1.76)	6.43(1.72)
	미혼자녀동거	4.53(1.74)	4.37(1.76)	5.30(1.93)	5.59(1.89)	6.27(1.73)	6.33(1.66)
<i>F</i>		8.49***	5.24**	22.43***	14.06***	7.17***	6.66***
계		5.01(1.77)	4.01(1.82)	5.44(1.97)	4.47(1.98)	6.04(1.87)	6.00(1.83)

주. 점수의 범위는 1-8이며, 각 영역별 2문항씩 자녀(귀하)가 귀하(자녀)에게 도움 주는 빈도를 전혀(1점)~자주(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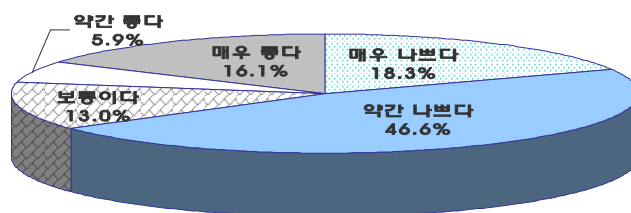
서 가장 많은 도움이 요구되는 독신가구노인이 자녀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수혜가 매우 취약하고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 또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낮아, 독신가구노인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교환관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경제생활

경제생활 영역의 조사항목으로는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수준, 주 수입원, 생활비부담비목, 물품구입피해 경험여부 및 종류이며, 이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그림 2>와 <표 6>부터 <표 8>까지와 같다. 농촌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은 ‘매우~약간 나쁘다’가 64.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 ‘매우~약간 좋다’는 22%로 나타났으며, 농촌노인의 성, 연령, 가구형태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농촌노인의 주 수입원은 ‘일/직업’이 52.6%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자녀/가족’ 31.8%, ‘재산/수당 등’이 15.5%이었다. 이를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가구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자노인, 70세 이상 노인, 기혼자녀동거노인은 주 수입원이 ‘자녀/가족’인 비율이 높은 반면, 남자노인, 60대 노인, 미혼자녀동거노인은 ‘일/직업’에 의한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은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비목으로 의료비를 34.3%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주거비 18.9%, 교제증여비 12.2%, 음식물비 9.6%, 광열수도비 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농촌노인의 특성



<그림 2> 농촌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 (N = 523)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표 6> 농촌노인의 특성별 주수입원의 종류 (N=541)

구 분		일/직업 n (%)	자녀/가족 n (%)	재산/수당 등 n (%)	χ^2
성별	여	110(41.2)	111(41.6)	46(17.2)	30.0***
	남	175(63.9)	61(22.3)	38(13.9)	
연령	60대	186(69.4)	44(16.4)	38(14.2)	81.7***
	70대	92(41.6)	96(43.4)	33(14.9)	
	80대+	7(13.5)	32(61.5)	13(30.8)	
가구 형태	노인독신	31(34.1)	32(35.2)	28(33.7)	136.3***
	노인부부	181(71.3)	43(16.9)	30(11.8)	
	기혼자녀동거	29(23.6)	83(67.5)	11(8.9)	
	미혼자녀동거	30(58.8)	8(15.7)	13(25.5)	
계		285(52.6)	172(31.8)	84(15.5)	

주.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 사례수와 합계의 사례수가 다를 수 있으며, 구분에서 ‘자녀/가족’에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배우자, 손자녀’를, ‘재산/수당 등’에는 ‘연금/퇴직금, 부동산/집세/저축, 생활보호/노령수당, 기타’ 등을 포함함

*** $p < .001$

<표 7>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비부담비목 (N=539)

구 분		의료비 n (%)	주거비 n (%)	교제 증여비 n (%)	음식물비 n (%)	광열 수도비 n (%)	기 타 n (%)	χ^2
성별	여	105(39.6)	57(21.5)	17(6.4)	27(10.2)	20(7.5)	39(14.7)	22.4**
	남	80(29.2)	45(16.4)	49(17.9)	25(9.1)	29(10.6)	46(16.8)	
연령	60대	75(27.8)	53(19.6)	42(15.6)	24(8.9)	30(11.1)	46(17.0)	21.1**
	70대	95(43.6)	38(17.4)	18(8.3)	20(9.2)	17(7.8)	30(13.8)	
	80대 이상	15(29.4)	11(21.6)	6(11.8)	8(15.7)	2(3.9)	9(17.6)	
가구 형태	노인독신	32(35.6)	24(26.7)	5(5.6)	7(7.8)	11(12.2)	11(12.2)	28.5**
	노인부부	81(31.8)	40(15.7)	41(16.1)	27(9.4)	28(11.0)	41(16.1)	
	기혼자녀동거	52(42.6)	18(14.8)	13(10.7)	12(9.8)	4(3.3)	23(18.9)	
	미혼자녀동거	15(29.4)	16(31.4)	5(9.8)	5(9.8)	4(7.8)	6(11.8)	
계		185(34.3)	102(18.9)	66(12.2)	52(9.6)	49(9.1)	85(15.8)	

주.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 사례수와 합계의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 $p < .01$

<표 8> 농촌노인의 특성별 물품구매 피해경험 및 종류 [n(%)]

구 분		피해경험		피해종류	
		있음	없음		
성별	여	24(53.3)	243(48.9)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 광고효과 나타나지 않음 제품불량 및 고장 기타	15(33.3) 13(28.9) 16(35.6) 1(2.2)
	남	21(46.7)	254(51.1)		
연령	60대	21(46.7)	248(49.9)		
	70대	22(48.9)	197(39.6)		
	80대이상	2(4.4)	52(10.5)		
가구 형태	노인독신	9(21.4)	81(16.9)		
	노인부부	17(40.5)	238(49.8)		
	기혼자녀동거	11(26.2)	114(23.8)		
	미혼자녀동거	5(11.9)	45(9.9)		
계		45(8.3)	497(91.7)	계	45(100.0)

주. 502명의 자료이었지만,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 사례수와 합계의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가구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활비 부담 비목으로 여자노인, 70대 노인, 기혼자녀동거노인은 의료비를, 노인독신가구와 미혼자녀동거노인은 주거비를, 남자노인과 60대 노인, 노인부부가구노인은 교제증여비를 많이 꼽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제품을 구입하여 불만족스러웠거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농촌노인의 비율은 전체노인 중 8.3%이며 성별, 연령, 가구형태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물품구입 피해 종류로는 ‘제품불량 또는 고장’(35.6%),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33.3%), ‘광고효과가 나타나지 않음’(28.9%)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건강생활

건강생활 영역의 조사항목으로는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수준, 병이나 사고로 몸이 불편하거나 편찮으셨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며, 이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먼저 노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수준은 평균 3.24점(1~5점 척도로 측정)으로 보통 이상의 건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강수준으로 ‘건강한 편이다~매우 건강하다’ 45%, ‘보통이다’ 29%, ‘나쁘다~나쁜 편이다’가 26.1%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의 특성별 건강수준이 성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유의미하게 더 건강하다고 지각하였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팠을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치료비가 문제된다’가 31%로 가장 많았고, ‘병, 의원 등 의료시설을 가기가 어렵다’ 25.7%, ‘농사일 중단’ 17.1%, ‘돌봐줄 사람이 없다’ 8.8% 순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도 17.1%이었다. 이것도 역시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노인은 치료비 문제를, 남성노인은 농사일 중단을 주로 언급하였다. 나이 든 노인일수록 의료시설이용 불편을 많이 언급하고 농사일 중단을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구형태별로는 독인가구노인은 돌봐줄 사람이 없음을, 부부가구노인은 농사일 중단을 어려움으로 호소하였으며, 기혼자녀동거노인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유병 시 동거하는 기혼자녀가 중요한 지원망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9> 몸이 불편하거나 아팠을 때 가장 어려운 점 [n(%)]

구 분		어려움 없 음	의료시설 이용불편	돌봐줄 사람없음	치료비 문 제	농사일 중 단	χ^2
성별	여	41(15.6)	81(30.8)	32(12.2)	86(32.7)	23(8.7)	33.4***
	남	49(18.6)	54(20.5)	16(6.1)	77(29.3)	67(25.5)	
연령	60대	42(16.3)	53(20.5)	19(7.4)	82(31.8)	62(24.0)	24.4***
	70대	37(17.1)	63(29.2)	23(10.6)	70(32.4)	23(10.6)	
	80대+	11(21.2)	19(36.5)	6(11.5)	11(21.2)	5(9.6)	
가구 형태	노인독신	7(7.9)	24(27.0)	23(25.8)	26(29.2)	9(10.1)	87.7***
	노인부부	36(14.5)	61(24.6)	17(6.9)	71(28.6)	63(25.4)	
	기혼자녀동거	40(33.6)	37(31.1)	3(2.5)	31(26.1)	8(6.7)	
	미혼자녀동거	5(10.4)	9(18.8)	3(6.3)	23(47.9)	8(16.7)	
계		90(17.1)	135(25.7)	48(8.8)	163(31.0)	90(17.1)	

주. 526명의 자료이었지만,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 사례수와 합계의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 $p < .001$

영농 및 노동생활

영농 및 노동생활 영역의 조사항목으로는 직업, 농사일 참여정도, 농사일 힘든 정도, 경제활동 지속의사 및 그 이유이며, 이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표 10>부터 <표 12>까지와 같다. 농촌노인의 직업으로 ‘농림어업직’이 6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무직’이 25.7% 등이었다. 직업은 노인의 성, 연령, 가구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노인, 60대, 부부가구 노인은 농림어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노인, 80대 이상 노인, 독인가구와 기혼자녀동거가구의 노인은 무직이 높게 나타났다. 농사일 참여정도 역시 성별이나 연령, 가구형태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노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남성노인은 전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노인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사일에 전적으로 참여한다는 비율은 낮아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 비율은 높아졌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노인이 농사일을 일부만 거들거나 전혀 짓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부부가구와 미혼자녀동거가구의 노인이 농사일을 전적으로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0> 농촌노인의 특성별 직업 [n(%)]

구 분		농림 어업직	생산/단순 노무직	무직	χ^2
성별	여	141(54.9)	27(10.5)	89(34.6)	28.3***
	남	175(63.9)	61(22.3)	38(13.9)	
연령	60대	191(74.4)	30(11.6)	36(14.0)	44.8***
	70대	128(61.2)	15(7.2)	66(31.6)	
	80대+	23(41.8)	3(5.5)	29(52.7)	
가구 형태	노인독신	37(41.1)	15(16.7)	38(42.2)	75.7***
	노인부부	209(82.0)	14(5.5)	32(12.5)	
	기혼자녀동거	70(55.6)	8(6.3)	48(38.1)	
	미혼자녀동거	27(52.9)	11(21.6)	13(25.5)	
계		285(52.6)	172(31.8)	84(15.5)	

주.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과 합계의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 $p < .001$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농사일 힘든 정도는 과반수 이상이 힘들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농사일이 힘들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농사일에 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거두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별, 가구형태별로는 농사일이 힘들다고 지각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건강이 좋다면 앞으로 농사일이나 돈벌이되는 일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있다’가 57.1%로 과반수가 경제활동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나이드는 노인보다는 젊은 노인이 경제활동의사가 더 높았다. 경제활동의사가 있는 노인들의 대부분(73.5%)은 ‘경제적 필요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건강이 허락하기 때문에’라는 응답도 17.1%나 되었다. 반대로 경제활동의사가 없는 노인들의 대부분(82.3%)은 ‘건강과 나이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1> 노인의 특성별 농사일 참여 및 힘든 정도 [n(%)]

구 분		농사참여정도(N=544)				농사 힘든정도 (N=374)		
		전적으로 함	타인과 비슷	일부만 거둠	농사짓지 않음	힘들다	보통	힘들지 않다
성별	여	73(27.2)	26(9.7)	59(22.0)	110(41.0)	82(52.6)	48(30.8)	26(16.7)
	남	150(54.3)	22(8.0)	52(18.8)	52(18.8)	122(56.0)	73(33.5)	23(10.6)
χ^2		48.0***				3.00		
연령	60대	148(55.0)	26(9.7)	42(15.6)	53(19.7)	118(55.4)	74(34.7)	21(9.9)
	70대	64(29.1)	21(9.5)	56(25.5)	79(35.9)	72(52.6)	44(32.1)	21(15.3)
	80대+	11(20.0)	1(1.8)	13(23.6)	30(54.5)	14(58.3)	3(12.5)	7(29.2)
χ^2		59.2***				10.4*		
가구 형태	노인독신	27(30.0)	1(1.1)	14(15.6)	48(53.3)	26(63.4)	11((26.8)	4(9.8)
	노인부부	147(57.4)	25(9.8)	47(18.4)	37(14.5)	125(9.8)	68(26.6)	22(8.6)
	기혼자녀동거	17(13.5)	19(15.1)	41(32.5)	49(38.9)	32(42.6)	26(34.7)	17(22.7)
	미혼자녀동거	24(48.0)	2(4.0)	5(10.0)	19(38.0)	16(53.3)	9(30.0)	5(16.7)
χ^2		111.6***				13.3		
계		223(41.0)	48(8.8)	111(20.4)	162(29.8)	204(54.5)	121(32.4)	49(13.1)

주.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 사례수와 합계의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 $p < .05$ *** $p < .001$

<표 12> 노인의 특성별 경제활동 의사 및 그 이유 [n(%)]

구 분		경제활동의사		하겠다는 이유 (N=275)	
		있다	없다		
계		304(57.1)	228(42.9)	경제적 필요 때문에	202(73.5)
성별	여	132(50.4)	130(49.6)	건강이 허락하므로	47(17.1)
	남	172(63.7)	98(36.3)	소일거리로	18(6.5)
χ^2		9.6***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8(2.9)
연령	60대	183(69.1)	82(30.9)	안하겠다는 이유 (N=158)	
	70대	103(47.9)	112(52.1)		
	80대 이상	18(34.6)	34(65.4)		
χ^2		33.6**		건강과 나이 때문에	130(82.3)
가구 형태	노인독신	42(47.7)	46(52.3)	의욕, 자신 없음	13(8.3)
	노인부부	159(63.9)	90(36.1)	편안히 즐기고 싶어서	8(5.1)
	기혼자녀동거	56(45.9)	66(54.1)	필요성 없음	7(4.4)
	미혼자녀동거	33(64.7)	18(35.3)		
χ^2		15.2**			

주. 526명의 자료에서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 사례수와 합계의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 $p < .01$ *** $p < .001$

여가 및 교육생활

여가 및 교육생활 영역의 조사항목으로는 희망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가장 큰 어려움, 교육의사, 보유솜씨 및 기술유무이었고, 이에 대한 실태는 <표 13>부터 <표 15>에 제시하였다. 농촌노인이 희망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중복응답으로 물어 교차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지만, ‘지식교육·교양 프로그램’이 70.3%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건강관리 프로그램’(39.6%), ‘노인상담·복지 프로그램’(28.0%), ‘여행, 관광, 등산, 낚시’(27.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지식교육·교양프로그램’은 여성노인보다는 남성 노인이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문항이 많아 빈도분석만 제시하였다. 농촌노인은 여가생활의 어려움으로 ‘여가활동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비용이 불충분하다' 27.3%, '여가장소·시설이 불충분하다' 24.1%, '몸이 불편하다' 22.3% 순으로 응답하였고, '시간 또는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5.2% 있었다. 농촌노인의 성별, 가구형태별로 노인이 느끼는 여가생활의 어려움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여가활동비용 불충분과 여가장소·시설의 불충분을 더 많이 지적하였고, 미혼자녀동거가구 노인은 여가비용의 불충분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표 13> 희망 여가활동 프로그램 (중복응답)

구 분	n(%)	구 분	n(%)
지식교육·교양프로그램	40(70.3)	사회봉사활동	32(5.9)
운동·건강관리프로그램	216(39.6)	전통문화프로그램	35(6.4)
노래·오락프로그램	107(19.6)	노인상담·복지프로그램	153(28.0)
여행, 관광, 등산, 낚시	148(27.1)	법률상식·시사프로그램	16(2.9)
친교프로그램	30(5.5)	기술교육프로그램	7(1.3)

<표 14> 노인의 특성별 여가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n(%)]

구 분	여가정보·지식 불충분	여가활동 비용 불충분	여가장소·시설 불충분	여가 활동에 교통불편	몸불편해 제대로 못즐김	시간 또는 관심 없음	χ^2
성별	여 43(16.2) 남 38(13.9)	여 62(23.4) 남 85(31.0)	여 55(20.8) 남 75(27.4)	여 24(9.1) 남 9(3.3)	여 66(24.9) 남 54(19.7)	여 15(5.7) 남 13(4.7)	15.0*
연령	60대 49(18.3) 70대 29(13.4) 80대 이상 3(5.6)	60대 79(29.5) 70대 55(25.3) 80대 이상 13(24.1)	60대 64(23.9) 70대 51(23.5) 80대 이상 15(27.8)	60대 15(5.6) 70대 16(7.4) 80대 이상 2(3.7)	60대 45(16.8) 70대 57(26.3) 80대 이상 18(33.3)	60대 16(6.0) 70대 9(4.1) 80대 이상 3(5.6)	16.9
가구 형태	노인독신 12(13.5) 노인부부 48(19.0) 기혼자녀동거 14(11.3) 미혼자녀동거 6(11.8)	노인독신 27(30.3) 노인부부 68(26.9) 기혼자녀동거 24(19.4) 미혼자녀동거 23(45.1)	노인독신 21(23.6) 노인부부 67(26.5) 기혼자녀동거 27(21.8) 미혼자녀동거 8(15.7)	노인독신 2(2.2) 노인부부 15(5.9) 기혼자녀동거 12(9.7) 미혼자녀동거 4(7.8)	노인독신 23(25.8) 노인부부 46(18.2) 기혼자녀동거 36(29.0) 미혼자녀동거 7(13.7)	노인독신 4(4.5) 노인부부 9(3.6) 기혼자녀동거 11(8.9) 미혼자녀동거 3(5.9)	28.5**
계	81(14.8)	147(26.8)	130(23.7)	33(6.0)	120(21.9)	28(5.1)	

주. 539명의 자료에서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 사례수와 합계의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 $p < .05$ ** $p < .01$

<표 15> 노인의 교육 참여의사 및 전통솜씨 보유여부 [n(%)]

구 분		교육참여의사 (N=544)		전통솜씨보유여부 (N=542)	
		있 다	없 다	있 다	없 다
성별	여	1392(51.07)	181(65.8)	49(18.4)	218(81.6)
	남	181(65.8)	94(34.2)	50(18.2)	225(81.8)
χ^2		11.2**		.00	
연령	60대	86(31.7)	185(68.3)	49(18.2)	220(81.8)
	70대	104(47.5)	115(52.5)	40(18.3)	179(81.7)
	80대 이상	34(63.0)	20(37.0)	10(18.5)	44(81.5)
χ^2		24.2***		.00	
가구 형태	노인독신	46(51.1)	44(48.9)	11(12.4)	78(87.6)
	노인부부	174(68.0)	82(32.0)	51(20.0)	204(80.0)
	기혼자녀동거	57(45.6)	68(54.4)	28(22.4)	97(77.6)
	미혼자녀동거	34(66.7)	17(33.3)	4(7.8)	47(7.8)
χ^2		15.2**		8.5	
계		320(58.8)	224(41.2)	99(18.3)	443(81.7)

주.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과 합계의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 $p < .01$ *** $p < .01$

한편, 노인을 위한 교육이 있을 때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58.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노인, 70대 이상 노인, 부부가구 및 미혼자녀동거가구 노인이 교육 참여의사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사람들이 칭찬하거나 본인이 잘 한다고 생각하는 솜씨나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18.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나 기술로는 음식솜씨, 사물놀이, 길쌈, 토공기술, 짚풀공예 등 30여 가지 이상이 조사되었다.

주거생활

주거생활 영역의 조사항목으로는 가장 불편한 주거시설, 지난해 겨울 난방형태, 노인주택의 필요성 3항목으로, 불편한 주거시설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가구형태별로만 불편한 주거시설과 지난해 겨울 난방형태를 살펴보았다 (<표 16> 및 <표 17> 참조). 불편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한 주거시설과 겨울 난방형태는 노인의 성별,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응답차이는 없었다. 먼저, 가장 불편한 주거시설을 살펴보면, ‘없다’ 24.7%, 화장실 25.7%로 각 4정도씩을 차지하였고, 냉난방시설 12.9%, 목욕탕 9.7%, 부엌 4.8%이었다. ‘기타’로는 ‘주택전체, 지붕·울타리, 마루, 다용도실, 벽’ 등이 있었다. 이는 가구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없다’는 응답은 기혼자녀동거가구에서 가장 많고 노인독신가구에서 가장 낮았는데, 노인독신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화장실, 냉난방시설을 불편한 주거시설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겨울난방형태는 ‘기름보일러’가 73.9%로 가장 많았고, ‘연탄보일러’ 7.3%, ‘전기보일러’ 7.1%, ‘기름보일러+나무펠감’ 5.3%, ‘나무펠감’ 4.8%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 노인일수록 기름보일러가 많고, 부부가구노인일수록 연탄보일러, 나무펠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노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 85.7%,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2.2%로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노인의 특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노후생활

노후생활 영역의 조사항목은 노후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노인부양 주책임자, 유병·사별시 희망부양자, 노후관심사항 4항목이며, 이에 대한 실태는 <표 18> 및 <표 19>에 제시되었다. 먼저, 노후생활

<표 16> 가구형태별 불편한 주거시설 [n(%)]

구 분	없 음	화장실	냉난방시설	부 엇	목욕탕	기 타	χ^2
노인독신	12(13.3)	29(32.2)	20(22.2)	5(5.6)	10(11.1)	14(15.6)	15.0**
노인부부	62(24.4)	69(27.2)	27(10.6)	15(5.9)	21(8.3)	60(23.6)	
기혼자녀동거	42(33.9)	27(21.8)	14(11.3)	4(3.2)	12(9.7)	25(20.2)	
미혼자녀동거	12(24.0)	8(16.0)	6(12.0)	1(2.0)	7(14.0)	16(32.0)	
계	131(24.3)	138(25.6)	71(13.1)	26(4.8)	56(10.4)	118(21.9)	

주. 540명 자료에서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과 합계의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 $p < .01$

<표 17> 가구형태별 겨울 난방형태 [n(%)]

구 분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전기보일러	기름, 나무	나무펠감	기 타	χ^2
노인독신	60(66.7)	15(16.7)	4(4.4)	4(4.4)	6(6.7)	1(1.1)	32.5**
노인부부	195(50.4)	16(6.2)	12(4.7)	17(6.6)	14(5.4)	3(1.2)	
기혼자녀동거	92(73.0)	6(4.8)	16(12.7)	4(3.2)	5(4.0)	3(2.4)	
미혼자녀동거	40(78.4)	1(2.0)	5(9.8)	3(5.9)	(0.0)	2(3.9)	
계	131(24.3)	138(25.6)	71(13.1)	26(4.8)	56(10.4)	118(21.9)	

주. 546명 자료에서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과 합계의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 $p < .01$

<표 18> 노후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n(%)]

구 분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식걱정	외로움	기 타	χ^2
성별	여	144(53.3)	82(30.4)	33(12.2)	6(2.2)	5(1.9)	4.2
	남	127(46.9)	91(33.0)	39(14.1)	9(3.3)	10(3.6)	
연령	60대	133(49.1)	85(31.4)	37(13.7)	5(1.8)	11(4.1)	10.5
	70대	107(48.6)	74(33.6)	29(13.2)	6(2.7)	4(1.8)	
	80대+	31(56.4)	14(25.5)	6(10.9)	4(7.3)	0(0.0)	
가구 형태	노인독신	37(41.1)	37(41.1)	8(8.9)	7(7.8)	1(1.1)	26.0**
	노인부부	140(54.5)	75(29.2)	30(11.7)	4(1.6)	8(3.1)	
	기혼자녀동거	63(50.0)	31(24.6)	23(18.3)	4(3.2)	5(4.0)	
	미혼자녀동거	22(43.1)	18(35.3)	10(19.6)		1(2.0)	
계		271(49.6)	173(31.7)	72(13.2)	15(2.7)	15(2.8)	

주. 524명 자료에서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과 합계의 사례수가 다름

** $p < .01$

<표 19> 노인부양 주책임자 및 희망부양자

노인부양책임자 (N=544)		희망부양자 (N=545)	
구 분	n(%)	구 분	n(%)
국가, 사회	42(7.7)	혼자/배우자	89(16.3)
자녀공동	50(9.2)	장 남	350(64.2)
아무자녀	80(14.7)	기타아들	60(11.0)
아무아들	42(7.7)	기타가족	10(1.8)
장 남	259(47.6)	친·인척	1(0.2)
본 인	71(13.1)	시 설	35(6.4)

주. 결측치로 인해 특성별과 합계의 사례수가 다름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건강문제’가 49.6%로 거의 과반수를 달했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31.7%, ‘자식걱정’ 13.2%, ‘외로움’ 2.7%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의 어려움이 성별,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구형태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독신가구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미혼자녀동거가구 노인은 ‘자식걱정’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은 우선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나이가 더 들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배우자께서 돌아가셔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가장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다. 주부양자와 희망부양자 모두 장남이 우세적이어서 나머지 항목들에 해당하는 표본수가 작아 교차분석이 의미가 없어, 전반적인 경향만을 <표 19>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주부양자로는 ‘장남’이 47.6%로 가장 높았으며, ‘장남’을 포함한 ‘자녀공동’, ‘아무 자녀’, ‘아무 아들’ 등 자녀로 생각하는 비율이 79.2%이며, ‘본인’ 13.1%, ‘국가·사회’ 7.7%이었다. 유병·사별 등 상황악화 시 희망하는 부양자로는 역시 ‘장남’이 64.2%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 자신 또는 배우자’ 16.3%, ‘기타 아들’ 11%, ‘시설’ 6.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는 ‘건강·병’이 69.1%로 가장 높았으며, ‘돈·생활비’ 17.3%, ‘자식장래’ 10.3%, ‘기타’ 3.3%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생활

정서생활 영역의 조사항목으로는 생활만족도, 고독감, 행복감 3항목을 조사하였다. 각각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은 <표 20>과 같다. 긍정적 측면의 심리적 복지감으로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은 각각 2.76점과 2.88점으로 보통 이하라고 응답했으며, 부정적 측면의 고독감 또한 2.86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성별 및 연령별 심리적 복지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가구형태별 분석에서는 오직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노인만 살고 있거나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특성별 생활만족도, 고독감, 행복감 [$M(SD)$]

구 분		생활만족도	고독감	행복감
성별	여	2.79(0.88)	2.95(1.19)	2.90(1.03)
	남	2.74(0.86)	2.78(1.21)	2.86(1.02)
<i>t</i>		.62	1.66	.35
연령	60대	2.83(0.88)	2.75(1.21)	2.94(1.05)
	70대	2.67(0.84)	2.99(1.18)	2.82(1.01)
	80대 이상	2.81(0.90)	2.91(1.21)	2.79(0.99)
	<i>F</i>	2.34	2.37	1.07
가구 형태	노인독신	2.66(0.74)	3.09(1.26)	2.88(0.91)
	노인부부	2.75(0.94)	2.82(1.21)	2.92(1.08)
	기혼자녀동거	2.71(0.78)	2.76(1.17)	2.77(1.01)
	미혼자녀동거	3.10(0.81)	2.84(1.17)	3.00(1.00)
	<i>F</i>	3.17*	1.45	< 1

주. 생활만족도는 ‘귀하는 귀하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행복감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등 단일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독감은 ‘귀하는 자주 고독감 또는 외로움을 느끼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p < .05$

복지욕구

복지욕구 영역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취약한 가정방문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농촌지역 가정방문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수준, 가정방문서비스 종류별 요구도, 및 가정방문서비스 이용 희망빈도를 묻는 세 항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한 결과는 <표 21> 및 <그림 3>에 제시했다. 먼저 가정방문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필요~필요한 편’(30.9%)이라고 응답하기보다도 ‘불필요한 편~매우 불필요’(37.6%) 또는 ‘보통’(31.5%)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가정방문서비스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필요성 정도는 농촌노인의 특성 중에서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60대 노인과 80대 이상 노인보다는 70대 노인들의 수요가 더 높았다.

중복응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한 가정방문서비스 내용별 필요성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농번기 농사일 지원’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고령농업인($N=381$)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48.6%로 증가하여 농촌노인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음을 고려하여 농번기나 유병 등으로 농사일을 잠시 못할 경우에 농사일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겠다.

다음으로는 ‘건강검진 및 병간호’ 34.7%, ‘말벗 및 생활상담’ 22.8%, ‘병원이용 및 외출시 동행’ 18.2%, ‘가사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15.8%, ‘목욕 및 대소변 수발’ 8.4%, ‘행정업무 대행(은행, 면사무소 등)’ 8.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방문서비스 이용 희망빈도로는 희망자 중의 45.5%가 ‘월1회’를 원하였으며, ‘월2회’ 20.6%, ‘주1회’ 17.3%, ‘주2회’ 8.7%, ‘농번기에는 거의 매일’ 7.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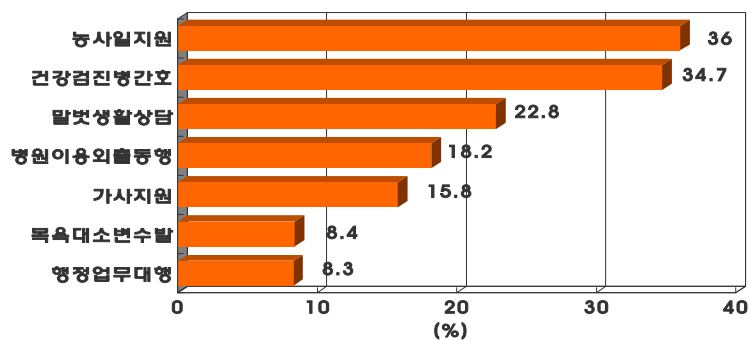
<표 21> 농촌노인의 특성별 가정봉사서비스 필요정도

구 분		$M(SD)$	F
성별	여	2.83(1.13)	< 1
	남	2.85(1.07)	
연령	60대	2.72(1.07)	5.32**
	70대	3.03(1.14)	
	80대 이상	2.69(1.10)	
가구 형태	노인독신	2.81(1.07)	< 1
	노인부부	2.80(1.04)	
	기혼자녀동거	2.86(1.24)	
	미혼자녀동거	2.84(1.05)	

주. 필요성 정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필요하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p < .01$

<그림 3> 가정방문서비스 내용별 요구도 (중복응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성·연령·가구형태별 가족·경제·건강·영농·여가·주거 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농촌노인을 위한 지도사업 및 복지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영역을 가족생활, 경제생활, 건강생활, 영농 및 노동생활, 여가 및 교육생활, 주거생활, 노후생활, 정서생활, 복지욕구 등 총 9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설문지를 구성한 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548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 건강, 영농 및 노동생활, 노후생활, 복지욕구 등 대부분의 생활실태가 노인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농촌노인의 특성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생활영역에서 부모자녀세대간 지원교환은 지원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 자녀로부터는 서비스나 경제적 도움보다는 주로 정서적 도움을 더 많이 주고받았으며, 독신가구노인의 지원교환이 가장 취약하였다.

둘째, 경제생활영역에서 농촌노인의 주 수입원이 ‘일/직업’인 경우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는 남성일수록, 젊을수록,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생활비부담비목으로는 여자노인, 70대 노인, 기혼자녀동거노인이 의료비를, 독신가구노인과 미혼자녀동거가구 노인은 주거비를, 남자노인과 60대 노인, 부부가구노인은 교제증여비를 많이 꼽았다.

셋째, 건강생활영역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아팠을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여성노인은 ‘치료비 문제’를, 독신가구노인은 ‘돌봐줄 사람이 없음’을, 부부가구노인과 남성노인은 ‘농사일 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영농 및 노동생활영역에서 농사일 참여정도는 농촌노인의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노인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동거가구 노인일수록 농사일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았다. 경제활동 지속의사는 남성노인, 60대 노인, 미혼자녀가구노인과 부부가구노인에게서 더 높았다.

다섯째, 여가 및 교육생활영역에서 남녀노인 모두 ‘지식교육·교양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그런 경향이 더 높았다. 여가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에 비해 여가활동비용의 불충분과 여가장소·시설의 불충분을 더 많이 지적하였고, 미혼자녀동거가구 노인은 여가비용의 불충분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여섯째, 주거생활영역에서 불편한 주거시설과 겨울난방형태는 가구형태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기혼자녀동거가구 노인일수록 불편한 주거시설이 없고 독신가구노인은 화장실과 냉난방시설이 불편한 시설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자녀동거가구노인일수록 기름보일러 난방형이 많고 부부가구노인일수록 연탄보일러, 나무땔감, 나무와 기름을 병행하는 형이 많았다.

일곱째, 노후생활영역에서는 노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독신가구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미혼자녀동거가구 노인은 ‘자식걱정’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정서생활영역에서는 생활만족도만이 가구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미혼자녀동거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방문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을 살펴보면, ‘필요하

다’(30.9%)는 응답보다는 ‘불필요하다’(37.6%)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는 농촌노인들이 가정방문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방문서비스 종류로는 ‘농사일 지원’(36%)이 가장 많았고 ‘건강검진병간호’(34.7%), ‘말벗 및 생활상담’(22.8%) 순이었다. 희망빈도는 ‘월1회’가 가장 많았다.

상기의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도시노인과는 차별적인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들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첫째, 농촌노인이 자녀와 주고받는 정서적 지원 교환은 서비스나 경제적 도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정서적 지원의 특성상 자녀와 비록 떨어져있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서비스 도움은 멀리 떨어져있는 자녀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 체제가 농촌노인에게는 매우 절실함을 시사한다.

둘째, 여자노인, 70대 노인, 기혼자녀동거노인일 수록 부담이 되는 생활비비목이 의료비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이들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데서 연유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지소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농촌노인들을 월1회 수준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진료하는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건강과 의료비용문제에 모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신가구노인일수록 불편한 주거시설이 화장실과 냉난방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와 단열재 설치를 지역자치단체에서 해준다면 주거비도 줄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농업인을 위한 영농도우미와 같은 가정방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현재 전국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수가 총 228개소이나 농촌지역에는 53개소(23.3%)로 농촌노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지수준도 매우 낮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봉사원 서비스 내용은 주로 가사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서비스(신체청결, 외출동행 등), 우애서비스(말벗, 상담 등) 등으로 농촌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농사일서비스 등은 서비스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농림부에서 농가여성 출산 시 도우미를 파견, 농사일을 도와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주는 농가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농가경영주의 56.7%(통계청, 2003)을 차지하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사업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농촌지역에는 기존의 가정봉사서비스 파견사업 및 농가도우미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가정봉사 파견시설을 복지회관 등과 같은 기존 시설들내에 함께 설치·운영함으로써 적어도 군당 1개소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농촌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이들의 대부분이 농사일의 힘듦과 구인난을 호소하므로, 가정봉사서비스의 내용을 고령농업인에게는 농번기 또는 유병시 농사일 지원까지 확대시키고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익기 등 7인 (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서울: 미래인력 연구센터.
- 농림부 (2002). *농촌지역 노인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농림부.
- 농촌진흥청 (1993). *농촌여성노인 생활실태조사*. 경기: 농촌진흥청.
- 이정화·송미영 (2004).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노인생활지도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 (3), 149-166.
- 조완규 (1994).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4, 73-96.
- 통계청 (1960,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3). *2002년도 농가경제통계연보*. 통계청.
- 한경혜 (1995). *농촌노인의 생활 향상을 위한 연구*. 농촌진흥청.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9).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The Living Conditions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Soon-Duck Yoon · Eun-Sik Park · Eun-Ja Kim · Young-Sook Cho
Rural Resources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orea 441-85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iving conditions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Based on previous studies related with the elderly, living conditions were classified into 9 areas: family life, economic life, health life, farm and work life, leisure and education life, housing life, later life, emotional life, and welfare needs. Data were collected from 548 elderly aged 60 and over living in rural areas nationwide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jority of living conditions for the rural elderl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sex, age, and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The major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various services and making a welfare policy for rural elderly.

(논문접수일: 2004년 10월 1일)

(수정논문접수일: 2004년 11월 3일)

(논문게재승인일: 2004년 11월 24일)